

서울아산병원 포천린넨센터 개소



서울아산병원 포천린넨센터가 4월 27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성욱 아산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천린넨센터는 병실 침대 시트, 환자복, 수술복 등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용하는 린넨류를 제조하고 세탁하는 시설로 2만 1,884㎡의 대지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장동과 부속동으로 이뤄져 있다. 시트류, 방포류, 환의류 등 일부 직물도 제조할 예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수준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포천린넨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선친의 뜻에 따라 설립되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해왔다. 서울아산병원이 이곳에 린넨센터를 건립한 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포천린넨센터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포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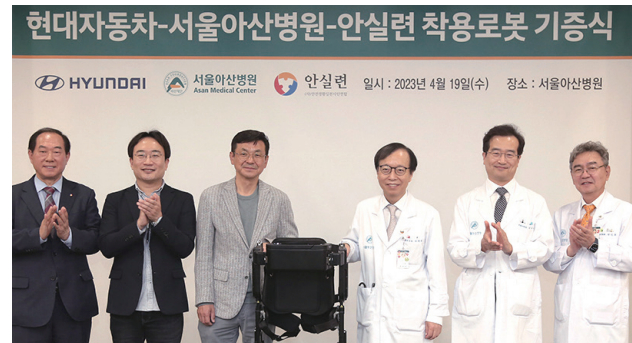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위한 ‘AMC사이언스’ 출범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을 목표로 출범한 ‘AMC사이언스’가 4월 27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2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박성욱 아산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정광철 아산재단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AMC사이언스는 서울아산병원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우수한 품질의 임상 자원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약물 표적 발굴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병원장 직속의 사내독립회사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하반신 마비 환자 보행 재활 돕는 ‘착용 로봇’ 기증식



서울아산병원은 4월 19일 하반신 마비 환자 재활을 돕는 의료용 착용로봇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받은 의료용 착용로봇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엑스블 메스(X-ble MEX)’ 2대로, 하지 근육 재건과 관절 운동을 돕는 의료용 착용로봇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보행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2년간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를 통한 의료용 착용로봇 고도화로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재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